

#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6. 1.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 목 차

1. SAFET, 지속가능 해양기술 DB · 연구브리프 공개 ..... 3
2. 일본, IUU 어업 단속 위해 남미에 드론 지원 약속 ..... 4
3. 버거킹의 피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생선은? ..... 5
4. 일본, 인도네시아산 참치 제품에 수입 관세 폐지 ..... 7

- 영국 비영리단체 SAFET는 지속가능한 양식·해양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해양 기술 데이터베이스 'Sea-Tech-In-Motion'과 관련 연구 브리프를 공개했음.
  - SAFET는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온라인 인터랙티브 DB 'Sea-Tech-In-Motion'을 선보였음
  - 사례연구,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격차 분석, 2030년까지의 전략 로드맵, 최신 산업표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며 지역·기술유형·영향도 등으로 검색 가능함
  - SAFET는 기업, 정부, NGO에 사례 제출을 요청하며, 현재 10개 지역에서 12개 프로젝트와 11개 기술을 수록하고 있음
  - 해상 제4차 산업혁명' 보고서를 통해 신기술이 양식 및 수산·해양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제시했음

※ 출처: SeafoodSource<sup>1)</sup>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safet-releases-technology-database-and-research-brief-to-promote-sustainable-ocean-technology> ('26년 1월 30일 검색)

- 일본은 남미 연안국들의 IUU 어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에콰도르·페루·아르헨티나·우루과이에 드론을 제공하기로 했음
  - 일본은 드론을 통해 남미 국가들이 자국 EEZ에 접근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도록 지원함
  - 중국 원양어선단을 포함한 대규모 외국 어선단의 활동이 남미 연안에서 지속적인 감시 대상임
  - 장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드론 활용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운영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 전문가들은 IUU 어업과 오징어 남획 대응을 위해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설립과 데이터 공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SeafoodSource<sup>2)</sup>

<sup>2)</sup><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japan-promises-to-send-drones-to-south-america-in-effort-to-curb-iuu-fishing> ('26년 1월 30일 검색)

### ■ 오랜 역사를 가진 샌드위치

- 원래의 Whaler 샌드위치는 타르타르 소스, 양상추, 참깨 번에 생선 필레를 얹은 간단한 요리였음. 1978년까지 버거킹은 스페셜티 샌드위치 라인의 일부로 샌드위치를 개편하여 롱 피쉬 샌드위치로 이름을 바꾸고 길쭉한 번에 제공했음.
- 수년에 걸쳐 이 샌드위치는 버거킹의 치킨 제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변형을 거쳤음. 1990년에 BK 브로일러 치킨 샌드위치를 출시했을 때, 이 생선 샌드위치는 판코 빵가루 코팅과 새로운 이름인 오션 캐치 피시 샌드위치를 채택했음.

### ■ 매콤한 빅피쉬 샌드위치와 매콤한 BLT 와퍼

- 또 다른 큰 변화는 2002년에 샌드위치의 크기가 커지고 와퍼 번에 제공되어 공식적으로 BK 빅피쉬가 된 것입니다. 이후 BK 피쉬, 프리미엄 알래스카 피쉬 샌드위치, 엑스트라 롱 피쉬 샌드위치 등의 브랜드가 추가되었음.
- 오늘날 이 샌드위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BK 빅피쉬로 판매되고 있으며, 국제 시장에서는 BK 피쉬, 피쉬 킹, 피쉬 로얄 또는 BK 피쉬앤 크리스프 버거로 알려져 있음.

### ■ 버거킹은 실제로 어떤 생선을 사용하나?

- 모든 버전의 중심에는 100% 야생에서 잡은 알래스카 명태가 있음. 이 명태는 부드러운 맛과 깨지기 쉬운 식감으로 유명합니다. 필레는 바삭한 판코 빵가루로 코팅되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튀겨지며 바삭한 양상추, 달콤하고 크림리한 타르타르 소스, 툭 쏘는 피클을 얹어 바삭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함.

## ■ 지역 맛 및 계절별 스페셜

- 버거킹은 생선 샌드위치 라인업을 상대적으로 적게 유지하면서도 지역 취향에 맞춘 현지화 버전을 제공함. 기독교 달력의 중요한 기간인 사순절에는 계절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체 재료가 포함된 한정 기간 혜택을 자주 선보임.

## ■ 논란과 기업 전략

- 샌드위치 자체는 논란을 거의 피했지만, 버거킹은 1982년 국제적인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의 포경으로 인해 아이슬란드 공급업체로부터 생선을 공급받은 후 보이콧에 직면한 적이 있음.
- 주요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생선 샌드위치는 버거킹의 핵심 광고에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의외로 글로벌 상표가 거의 없어 브랜드 전략에서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지속되는 조용한 클래식

- Whaler부터 BK 빅피쉬까지 버거킹의 생선 샌드위치는 변화하는 맛, 시장 트렌드, 브랜딩 전략에 지속적으로 적응해 왔음.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재구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 야생에서 잡은 알래스카 명태 사용과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레시피임.

출처: [www.seafood.media](http://www.seafood.media)<sup>3)</sup>

---

3)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7009&ndb=1> (1월 22일 기사)

- 개정된 일본-인도네시아 경제동반자협정(IJEPA)으로 8,000만 달러 규모의 수산물 무역이 추진되고, 지역 참치 시장을 재편
  -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개정된 일본-인도네시아 경제동반자협정(IJEPA)의 발효를 위한 최종 단계에 들어가 있음.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일본은 특정 인도네시아산 가공 참치 및 가다랑어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됨. 연간 8,000만 달러 규모의 수산물 무역이 대상이 됨.
  - 개정 IJEPA 의정서는 2024년 8월 자카르타에서 정식으로 서명되었음. 이는 양국 정부가 경제협력 심화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음을 반영함. 일본 농림수산업성(MAFF)에 따르면 이 협정은 이미 일본 국회에서 승인됐으며 인도네시아 측이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발효 시기는 미정이지만,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여짐.
  - 개정 협정 하에서, 인도네시아산 수산물 11개 품목이 즉시 관세 철폐 대상이 됨. 주요 대상은 참치캔(참치 통조림), 가다랑어 통조림, 가쓰오부시 및 각종 가열, 가공 참치 및 가쓰오 제품임. 현재 이들 제품에는 일본 시장에서 6.4%~7.2%의 수입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0%가 됨.
  - 무역 통계에서 일본 시장 내 인도네시아산 수산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024년에 일본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대상 11개 품목에 대해 약 12,500톤을 수입해, 수입액은 약 7,300만 달러에 이르렀음. 2025년 첫 11개월간 수입량은 이미 13,651톤, 수입액은 약 7,800만 달러가 되어 관세 철폐 전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연중 수준을 웃돌았음. 이는 일본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산 참치 가다랑어 제품의 지속적인 확대를 보여줌.
  - 또한 협정에는 지속가능성과 이행 요건도 포함되어 있음. 일부 가열 참치 및 가다랑어 제품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증이 필요하고, 또한 체장 30cm 미만 어류를 원료로 하지 않은 제품만이 즉시 관세 철폐 대상이 됨. 이는 자원관리 강화와 치어 어획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임.

- 인도네시아는 현재 일본 시장 내 가다랑어 및 참치 통조림의 제2위의 공급국이며, 1위는 태국임.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은 인도네시아산 가열 통조림 참치 및 가다랑어 제품 2위 수출처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뒤를 잇고 있음. 이 상호의존 관계는 개정 IJEPA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무관세 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및 가공업자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인증, 추적가능성, 등록 수속에 관한 지침을 발행할 예정으로, 수출 기업 및 수산 가공 공장은 협정 발효 후 무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사전 해양수산부에 등록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참치 통조림 및 기타 가공 수산물 수출은 연평균 성장률(CAGR) 13.82%를 기록해 같은 기간 태국과 필리핀을 앞질렀다. 전문가는 개정 IJEPA에 의한 관세 철폐가 비용 절감과 가격 경쟁력 향상을 가져와 일본 시장에서의 인도네시아 제품 점유율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킨다고 지적한다.
- 업계 관계자들은 이 협정이 일본의 참치 수입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쳐 인도네시아산 가공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한편 일본 내 가공업체나 다른 해외 공급국과의 경쟁을 한층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다 넓은 시점에서는 개정 IJEPA는 일본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의 확보,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세계의 수산물 무역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출처: [www.seafood.media](http://www.seafood.media)<sup>4)</sup>

---

4)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7014&ndb=1> (1월 23일 기사)